

96.3.22
심야 성폭행 택시기사 구속

경기 광명경찰서는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늦은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20대 여자 승객들만을 골라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(성폭력 특별법)로 서울 삼신택시 소속 영업용 택시기사 구자성(24)씨 등 2명을 구속했다.

광명 / 홍용덕 기자